맛따라 멋찾아!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㉒ 남도 투어랠리 여름리그

역사·문화 탐방하고 경품도 받으세요

2008 광주·전남 방문의해 최대 이벤트 가운데 하나인 '남도 투어랠리(Tour Rally)' 여름리그가 최근 시작됐다. 투어랠리는 광주·전남 관광지 170곳을 답사해 투어 랠리 인터넷 홈페이지(www.tourrally.co.kr)에 사진을 올리면 가장 많은 곳을 답사한 관광객에게 푸짐한 경품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봄, 여름, 가을 별로 2명씩 모두 6명의 최다 답사자에게 기아자동차 모닝을, 차순위 6명에게는 보성다비치 콘도 회원권 등 파격적인 경품을 제공한다.

여름철 리그 참가자는 모두 672명. 광주·전남 지역 관광객은 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서 몰려 갈수록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참가자는 수도권이 55.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산·경남(9.2%), 대전·충남·충북(8.3%), 전북(8.3%) 대구·울산·경북(7.2%), 강원(2.3%), 제주(1.1%) 순이다. 리그 진행방식과 여름철에 가볼만한 곳을 소개한다.

관광지 170곳 최다 답사자 승용차 등 푸짐한 경품

◇**진행 방식**=광주·전남 거주자를 제외한 타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 관광지 170곳을 선택해 여행하면서 포토포인트에서 사진을 촬영, 홈페이지에 올리면 된다. 참가자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최다 답사자와 참여자 개인의 순위를 검색할 수 있다.

리그는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배점은 내륙 관광지의 경우 1곳당 1점, 섬 관광지는 1곳당 3점, 참가자 1인당 1점을 부여한다.

시상은 9월중에 하며, 다득점 상 1등은 경승용차, 2등은 보성다비치 콘도회원권을 준다. 추첨상은 경승용차, 콘도회원권, PMP, 친환경쌀 등을 수여한다.

◇**흑산도·홍도·가거도**=흑산도·홍도·가거도는 여름 휴가지 가운데, 최상급 여행지로 꼽힌다. 바다와 섬과, 맛과 멋, 그리고 낭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는 흑산도에서는 해안도로를 따라 탁 트인 바다와 문화유적을 만나면서, 톡쏘는 홍어회를 맛볼 수 있다.〈목포에서 1시간 50분 소요· 1일 7회 운항· 흑산면사무소 061-275-9300〉

이름만큼 붉고 아름다운 홍도는 기묘한 형상의 바위와 절벽, 울창한 숲이 환상적인 조화이뤄 섬 자체가 천연기념물이다.〈2시간 30분 소요·1일 2회 운항· 홍도 1구 어촌계 061-246-2600〉

우리나라 남서쪽 끝 섬인 가거도는 아기자기한 능선과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어 신비로움을 자아내는 곳으로 푸른바다를 바라보며 정감 넘치는 산행을 하는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4시간 30분 소요· 매일 1회 운항· 오전 8시 목포항 출발〉

◇**신안 우전 해수욕장**=8월 1일부터 4일간 섬·갯벌 올림픽 축제가 예정돼 있다. 풋살대회, 피구, 장애물단축마라톤대회, 스토롱맨대회가 갯벌에서 펼쳐지며, 바다수영대회도 열린다. 섬문화, 천일염, 갯벌 등을 돌며 소금 만들기, 자전거 하이킹, 백합캐서 목걸이 만들이, 고기잡이, 셀프 머드탕 등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다. 29개의 텐트촌, 해양 레포츠 무료 체험 교실(8월2~16일) 등이 운영된다. 〈신안군 문화관광과 061-240-8946〉

◇**나주 노안 이슬촌**=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흔치 않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꾸라지 잡기, 옥수수 따기, 수영장 물놀이는 기본이고, 친환경농산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다.가족 단위로 참가하는 것이 좋다.〈나주시 노안면 양천리 061-335-0123〉

◇**영암 구림 한옥민박**=500년 전통의 대동계가 내려오고 있는 구림마을에서 정겨운 흙담길을 걸으며, 아이들과 과거 체험을 할 수 있다. 왕인 박사와 도선국사 등 이곳에서 배출된 숱한 인재들의 흔적도 더듬어 볼 수 있다. 종이공예, 떡메치기, 역사문화탐방, 전통혼례, 음식체험, 천자문 강습, 예절교실 등이 마련돼 있다.〈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 061-472-0174〉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 **여름철 투어랠리 170곳**

구분	대상지	개수
광주시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탑,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홍보관, 의재미술관, 예술의 거리, 5.18자유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시립민속박물관, 광주향교, 포충사, 국립5.18민주묘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원효사, 충장사, 광주호 호수생태공원, 시립미술관, 국창 임방울기념비, 월봉서원(빙월당), 용아 박용철 생가, 월계동 장고분	20
목포시	유달산 , 국도1호 기점, 평화광장분수대, 자연사박물관, 남농기념관, 외달도해수욕장, 전남도립국악단토요공연(장)	7
여수시	향일암, 오동도, 진남관, 거문도·백도, 돌산대교, 해양수산과학관, 사도	7
순천시	낙안읍성, 송광사, 선암사, 순천만, 사랑과야망 세트장, 전통차체험관	6
나주시	삼한지테마파크, 천연염색문화관, 영산포 등대, 완사천, 불회사, 반남고분군, 나주읍성(금성관), 영산강 황포돛배, 노안이슬촌	9
광양시	광양항, 백운산휴양림, 매화마을, 어치계곡, 옥룡사터	5
담양군	메타세쿼이아, 죽녹원, 소쇄원, 금성산성, 관방제림, 대나무공원	6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도림사, 태안사, 옥과미술관, 심청이야기마을, 고달면가정마을	6
구례군	화엄사, 운조루, 야생화자연생태체험관, 연곡사, 구례읍 다무락마을, 섬진강토산어류생태관	6
고흥군	소록도, 고흥만방조제, 대전해수욕장, 남열해수욕장, 유자공원, 우주항공센터	6
보성군	보성차밭, 해수녹차탕, 대원사, 옹기마을, 벌교홍교, 서재필기념공원	6
화순군	운주사, 고인돌군, 유마사, 백아산휴양림, 물염정, 들국화마을	6
장흥군	제암산, 토요시장, 천문과학관, 문학공원, 수문해수욕장 용산쇠똥구리마을, 정남진	7
강진군	다산초당, 백련사, 청자도요지, 영랑생가, 마량항, 무위사, 사의재, 하저마을	8
해남군	땅끝, 공룡박물관, 고천암철새, 대흥사, 녹우당, 달마산 미황사, 송호리 해수욕장, 강강술래전수관	8
영암군	왕인박사유적지, 구림마을, 월출산 천황봉, 영산호농업박물관, 도갑사	5
무안군	초의선사탄생지, 회산백련지, 백로번식지, 월선리예술촌, 도리포갯벌체험장, 항공우주전시장, 송계마을	7
함평군	자연생태관, 돌머리해수욕장, 용천사, 황금박쥐기념탑, 일강김철기념관, 생활유물전시관	6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불갑사, 불교최초도래지, 원불교성지, 가마미·송이도해수욕장, 법성포구,두우리마을	8
장성군	백양사, 축령산, 백비, 필암서원, 동학혁명기념탑, 금곡마을, 홍길동테마파크, 한마음공동체	8
완도군	해신청해포구촬영장, 완도수목원, 장도청해진 유적지, 정도리구계등, 고금도 이충무공 유적지,보길도 세연정, 청산도 봄의왈츠 세트장, 신지해수욕장	8
진도군	남도석성, 운림산방, 진도대교, 관매도, 세방낙조, 용장산성, 가계해수욕장	7
신안군	증도, 홍도, 흑산도, 우이도, 하의도, 가거도, 대광해수욕장, 우전해수욕장	8

홍도 독립문. 홍도는 기묘한 형상의 바위와 절벽, 숲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천연기념물이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4일 신안 증도에서 열린 '제1회 슬로시티 아름다운 걷기 여행' 참가자들이 국내 최대 염전인 태평염전에서 소금만들기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여행객 800여명, 지역내 여행객 200여명 등 1천여명이 참가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한국국제관광전 최우수 홍보부스 운영상

광주시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21회 한국국제관광전'에서 최우수 홍보부스 운영상을 수상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축제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광주시는 18㎡규모의 홍보부스〈사진〉 2개를 설치,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와 제7회 광주비엔날레 및 2008 김치축제, 진다리붓 등을 집중 홍보했다.

또한 관람객들을 상대로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는 퀴즈를 진행, 비엔날레 입장권과 광주시의 수돗물 브랜드인 '빛여울수' 등을 나눠줬으며 남도 투어랠리(Tour Rally) 참가 신청도 함께 받았다.

아울러 시는 중국, 일본, 홍콩 등에서 온 관광바이어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활동을 펼쳤다.

광주 관광홍보부스에는 행사기간 중 3천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지난 8일 충실한 전시내용과 부스 운영을 높이 평가해 최우수 운영상을 수여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주최하고 세계관광기구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한 이번 국제관광전에는 세계 50개국에서 416개 기관이 481개의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